

A Case Study on Museum Spatial Design Characteristics for the Sense of Place

Guo, Feng Ming

First Author. Ph.D,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Hanyang University

Hwang, Yeon Sook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Dept., Hanyang University

Kim, Yu Jin

Co-Author. Ph.D Student,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Hanyang University

(Background and Purpose) Modern museums function not merely as venues for displaying historical and cultural artifacts but as integrated cultural facilities that enable social interaction, and experiential engagement. By reconstructing historical and cultural memory and reinforcing collective identity, museums evoke emotional empathy, thereby establishing a distinctive sense of place. A museum with a sense of place effectively communicates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while enhancing visitors' immersive experienc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strategies for improving museums as cultural facilities that convey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and promote social interaction, through a case analysis based on museum spatial design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sense of place. **(Method)** This study analyzed previous research on sense of place and museums to derive museum spatial design characteristics for sense of place, which were categorized into physical, activity, and meaning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this study analyzed five national museums in Seoul—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ational Gugak Museum,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National Aviation Museum of Korea—that had been newly constructed or renovated within the past decade.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sense of place was primarily established through physical characteristics, which provided the foundation for activity and meaning characteristic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exhibition themes were closely integrated with nearby spaces, creating a coherent sense of place built upon a shared thematic narrative. Regarding activity characteristics, the museums supported exhibition viewing and program participation for diverse visitor groups; however, services specifically designed for elderly visitors, such as accessible guidance and participatory programs, were insufficient. In terms of meaning characteristics, spatial composition and program organization effectively conveyed exhibition themes, creating immersive environments that encouraged memory recall and emotional engagement. **(Conclusions)** Museums should not only serve as venues for exhibition viewing but also function as social spaces that support rest and interaction. To encourage continuous visits and long-term stays, rest areas and convenience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in lobby floors, along with support services for visitors, including the elderly. Furthermore, integrating storytelling and experiential elements into the spatial composition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sense of place by facilitating interaction between museum spaces and visitors. This study provides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the sense of place in museums by effectively communicat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exhibition themes and facilitating diverse forms of social interaction. Future research incorporating user-centered methods such as interviews or surveys may yield more empirically grounded results.

Keywords Sense of Place, Place-Making, Museum, Museum Spatial Design, Spatial Design Characteristics

Received Jul. 04. 2025 **Reviewed** Jul. 18. 2025 **Accepted** Aug. 31. 2025

ISSN 1976-4405 www.kisd.or.kr

10.35216/kisd.2025.20.5.333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곽풍명

제1저자. 박사,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연숙

교신저자. 교수,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김유진

제2저자.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의 박물관은 단순히 역사·문화적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통합적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자는 박물관이 역사·문화적 기억을 재현하고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 고유의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박물관 공간디자인의 장소성 형성 특성에 주목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문화시설로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의 핵심 특성으로 ‘물리적 특성, 활동적 특성, 의미적 특성’의 세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구성된 공간디자인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최근 10년 이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서울시 소재 국립박물관 5곳(국립고궁박물관, 국립국악박물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사례 분석 결과, 박물관은 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활동적·의미적 특성을 구현함으로써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물리적 특성의 측면에서 박물관의 전시 주제가 주변 도시 맥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하나의 통합된 장소적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활동적 특성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관람객층이 전시 관람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고령자를 위한 세부적인 서비스는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미적 특성의 측면에서는 박물관이 전시 주제에 부합하는 공간 연출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람객의 몰입감과 기억 환기를 유도하는 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관람 공간을 넘어, 휴식과 교류 등 다양한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비 층에 휴게 및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관람객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방문과 장기 체류를 유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또한 박물관이 스토리텔링과 체험적 요소를 통합하여 관람객과 공간 간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소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박물관은 전시 주제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전달함과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실증적이고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Keywords 장소성, 장소성 형성, 박물관, 박물관 공간디자인, 공간디자인 특성

Received Jul. 04. 2025 **Reviewed** Jul. 18. 2025 **Accepted** Aug. 31. 2025

ISSN 1976-4405 www.kisd.or.kr

10.35216/kisd.2025.20.5.33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 63%로 202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 이러한 여가활동유형 중 하나인 문화예술관람활동은 교양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 등을 관람하는 활동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연극 및 공연 관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박물관은 단순히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 등을 보존 및 전시하는 기능을 넘어 사람 중심의 교육 및 체험, 사회적 소통 등이 가능한 다기능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시설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적 기억을 재현하고 정체성을 확립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적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박물관만의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소성이 구현된 박물관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박물관 전시주제와 관련하여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에 기초한 사례 분석을 통해 박물관만이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가능한 문화시설로의 개선 및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장소성과 박물관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을 도출하고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셋째, 서울시 소재의 박물관 중, 최근 10년 이내에 신축 및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국립박물관 사례 5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였다. 넷째, 체크리스트에 기초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장소성의 개념과 특성

2.1.1 장소성의 개념

장소는 인간과 물리적 환경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와 일체감을 형성하는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장소만이 갖는 의미를 바탕으로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다(Hwang, 2013; Baik, 2004). 장소성은 특정 장소가 갖는 본질로서 다른 장소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였다(Yu, 2018; Hong, 2009).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장소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Kwon, 2013).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장소성의 개념은 ‘장소의 본질 및 특성’,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소성을 특정 장소가 갖는 본질이나 개성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룸으로써 집단적 소속감과 애착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하였다.

2.1.2 장소성을 위한 공간디자인 특성

본 연구는 장소성을 위한 공간디자인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공간디자인 및 실내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 중에 최근 10년 이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을 도출하였다(Choi, 2023; Chae, 2021; Kim, 2021; Park, 2020; Do, 2017; Lee, 2015; Maeng, 2015).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특성

물리적 환경은 자연환경과 건축물 등의 인공적인 환경을 포함하며, 각 환경만이 갖는 특징을 통해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Chae, 2021; Kim, 2021; Park, 2020; Lee, 2015). 이러한 물리적 환경은 대지 또는 건축물 위치 및 형태에 따라 영역이나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영역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연결을 이룬다(Choi, 2023; Lee, 2015). 또한, 물리적 환경의 특징을 연상시키는 재료 및 디자인을 활용하여 환경만의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다(Kim, 2021; Do, 2017). 이에 물리적 특성은 공간의 영역과 경계를 형성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연결성을 이루며, 물리적 환경을 연상시키는 재료 및 디자인 등을 활용하는 특성이다.

(2) 활동적 특성

물리적 환경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가 발생한다(Choi, 2023; Kim, 2021; Maeng, 2015). 이를 통해 장소와 인간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적 또는 집단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Lee, 2015). 또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행위 등에 기초한 행태를 유도함으로써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다(Park, 2020; Do, 2017). 이러한 점에서 장소만이 갖는 역사·문화적 특징 등을 반영하여 행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Chae, 2021). 이에 활동적 특성은 공간에서의 활동을 유도하고 공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특성이다.

(3) 의미적 특성

물리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와 역사·문화적 맥락이 축적됨에 따라 의미 있는 장소를 형성할 수 있다(Choi, 2023; Maeng, 2015). 이와 관련하여 장소에 대한 기억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장소적 의미를 형성한다(Park, 2020; Lee, 2015). 이러한 측면에서 장소만이 갖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맥락과 의미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Chae, 2021; Kim, 2021; Do, 2017). 이에 의미적 특성은 장소만이 갖는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에 기초한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상징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기억 환기와 호기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메시지 전달 등을 이루는 특성이다.

2.2 박물관의 개념과 특성

2.2.1 박물관의 개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박물관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관리·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²⁾ 현대의 박물관은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에서 나아가 관람객과의 소통 및 공유를 중요시함에 따라 다기능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시설로의 변화를 이루고 있다(Shin, 2021).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은 전시주체에 기초한 다양한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의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다(Guo, 2025; Kim, 2014).

2.2.2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

본 연구는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을 도출하고자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 전시공간 특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최근 10년 이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Yu, 2021; Cao, 2019; Woo, & Kim, 2017; Cho, 2015).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위치 및 동선, 규모 및 배치, 휴식 및 편의시설, 안내시설, 채광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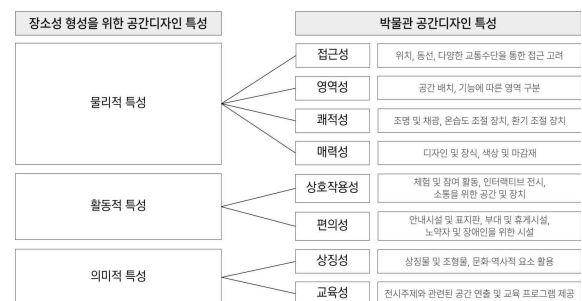
조명, 색상 및 마감재, 상징물과 조형물, 전시매체를 활용한 소통, 전시와 관련된 공간 연출 및 프로그램 제공' 등과 같은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의미를 갖는 내용을 종합하여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을 다음 <표 1>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1>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

구분	세부내용
교육성	전시주제와 관련된 공간 연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매력성	디자인 및 장식, 색상 및 마감재
상징성	상징물 및 조형물, 문화·역사적 요소 활용
상호작용성	체험 및 참여 활동, 인터랙티브 전시, 소통을 위한 공간 및 장치
영역성	공간 배치, 기능에 따른 영역 구분
접근성	위치, 동선,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접근 고려
쾌적성	조명 및 채광, 온도도 조절 장치, 환기 조절 장치
편의성	안내시설 및 표지판, 부대 및 휴게시설,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2.3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은 장소성을 위한 공간디자인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특성'은 물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특성으로 '접근성, 영역성, 쾌적성, 매력성'을 포함한다. '활동적 특성'은 사회적 행위를 유도하고 상호작용을 이루는 특성으로 '상호작용성, 편의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의미적 특성'은 장소가 갖는 역사·문화적 의미를 전달하는 특성으로 '상징성, 교육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처럼 유사한 의미를 갖는 특성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재정리하였고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을 다음 <표 2>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1>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 재정리 과정

〈표 2〉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

구분	세부내용
물리적 특성	박물관의 위치, 공간 구성, 동선, 색채 및 마감재 등의 물리적 요소를 통해 박물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특성
활동적 특성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의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상화작용을 이루는 특성
의미적 특성	박물관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상징성을 기반으로 박물관에 대한 정체성과 의미를 강화하는 특성

3.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 분석 체크리스트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인 ‘물리적 특성(접근성, 영역성, 매력성, 쾌적성), 활동적 특성(편의성, 상호작용성), 의미적 특성(상징성, 교육성)’의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분석 항목을 도출하였다. 분석 항목은 현장 조사를 통한 사례 분석에 활용 가능한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 분석 체크리스트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 분석 체크리스트

구분	분석 항목	
물리적 특성	접근성	A1 다양한 교통수단(ex. 대중교통, 자전거, 자동차, 도보 등)을 통한 이동 및 접근을 고려하고 박물관까지의 접근 경로를 조성하고 있는가
	영역성	A2 박물관 전시영역과 서비스영역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있으며, 각 공간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유기적인 동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가
	매력성	A3 박물관 전시주제와 관련있는 색채 및 마감재 등을 활용하여 박물관 공간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가
	쾌적성	A4 조명 및 채광, 온도, 환기 등의 물리적 환경 조건을 통한 쾌적한 전시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박물관에 대한 시지각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가
활동적 특성	편의성	B1 연령 및 신체 조건, 정보 이해 수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박물관 전시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가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B2 지속적인 방문과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전시 관람을 지원하는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있는가
	상호작용성	B3 박물관 전시주제와 연계를 이루는 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가
		B4 디지털 기술 및 인터랙티브 장치 등을 활용하여 박물관 주제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시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가

의미적 특성	상징성	C1 박물관 특정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적 반응 및 기억 환기 등을 유도하여 박물관 전시주제에 부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가
		C2 박물관 전시주제와 관련된 조형물 및 시각적 요소 등을 통해 박물관의 전시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교육성	C3 박물관 전시주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시내용에 관한 학습적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가
		C4 박물관 전시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연출을 이루고 있는가

4. 사례분석

4.1 사례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가 제공한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정보3)」, 「서울시 박물관 현황 통계4)」의 공공데이터에서 제시된 서울시 소재의 박물관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 중, 국립박물관은 국가가 설립 및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국가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여 국가적 정체성과 기억을 공유하는 장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 이내에 신축 및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국립박물관 사례 5곳을 선정하였다. 사례대상 개요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사례대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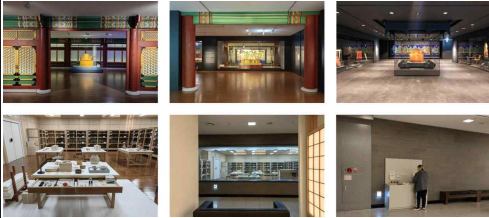
구분	사례명	위치
A	국립고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B	국립국악박물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C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
D	국립민속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E	국립항공박물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4.2 사례분석

4.2.1 사례 A :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관련 유물 조사 및 연구, 보존 및 복원, 전시 및 교육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문화기관과의 교류 또한 도모하고 있다.5) 박물관이 서울의 역사 중심지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화문과 경복궁에 인접해 있어 역사적 맥락이 연결을 이루는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다. 분석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사례 A : 국립고궁박물관

구분	국립고궁박물관			
개요	위치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개관(리모델링)	1908년(2020년~)	연면적	18,284㎡
이미지				
특성	분석내용			
물리적 특성	A1	서울 중심지에 위치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고 경복궁역 일부 출구가 박물관 주출입구와 연결을 이루는 접근 경로를 조성함		
	A2	전시영역과 서비스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전시영역은 주제에 따라 층별로 공간을 구분하여 동선에 따른 전시흐름 파악을 유도함		
	A3	한국 전통 건축 양식과 문양, 전통 색채 및 마감재 등을 주로 활용하여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주제로 한 박물관임을 표현함		
	A4	전시물 배치에 따른 조명 계획, 온·습도 조절 및 환기 설비 등의 시스템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관람 환경을 조성함		
활동적 특성	B1	다국어 안내 및 큰 글씨 안내책자, 전시 안내 로봇 배치 등을 통해 다양한 관람객의 전시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함		
	B2	박물관 전시주제를 구분하여 각 층마다 전시공간을 구성한 다층 구조로 각 층마다 다양한 형태의 휴게 및 편의시설을 구성함		
	B3	스텝프 투어 형식의 체험 활동을 유도하는 안내문 및 활동지를 전시공간 출입구에 함께 배치함		
	B4	디지털 기술을 통한 체험 장비 및 유물의 복제품을 배치하여 관람객이 직접 유물의 형태를 만지고 살펴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함		
의미적 특성	C1	일부 전시공간 구성에 있어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모티브로 한 공간디자인을 통해 한국의 역사·문화적 측면의 전시주제에 부합하는 분위기를 형성함		
	C2	한국 전통 문양인 단청의 패턴이 적용된 벽면 디자인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전시내용을 전달함		
	C3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을 고려하여 왕실 유물과 연계하는 역사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C4	조선 왕실에서 대한제국 황실까지 시대순으로 한국 역사의 흐름에 기초한 공간을 연출함		

4.2.2 사례 B : 국립국악박물관

국립국악박물관은 국립국악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전통 음악인 국악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의 전시 뿐만 아니라 청각 중심의 다양한 체험 및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⁶⁾ 박물관 인근에 국립국악원 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이 위치하고 있어 예술분야와 관련된 공간들이 서로 연결을 이뤄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다. 분석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사례 B : 국립국악박물관

구분	국립국악박물관			
개요	위치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개관(리모델링)	1995년(2019년)	연면적	3,348㎡
이미지				
특성	분석내용			
물리적 특성	A1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과 함께 이용 가능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교통수단으로의 이동 및 접근을 고려함		
	A2	전시영역과 서비스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전시영역은 국악사와 관련된 악기, 악보, 아카이브 자료 등을 구분하여 공간을 구성함		
	A3	전시물이나 내용이 돋보일 수 있는 모노톤의 색채 및 마감재를 활용하였으나, 박물관 전시주제를 연상시키는 색채 및 마감재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음		
	A4	전시물 배치에 따른 조명 계획, 온·습도 조절 및 환기 설비 등의 시스템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관람 환경을 조성함		
활동적 특성	B1	다국어 및 점자 안내, 전시 안내 로봇 배치, 미디어 가이드 대어 서비스, 외국인 전시해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고령자를 고려한 전시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 지원 체계가 부족함		
	B2	2층에 상설전시공간으로의 관람 동선과 연결을 이루는 1층에 국악을 공간과 함께 휴게시설을 구성함		
	B3	체험실의 공간을 통해 실제 한국 전통 악기를 연주해볼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함		
	B4	신체 감지 기술을 반영한 인터랙티브 전시를 통해 궁중의례 편성악기 및 중요제례악 등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구성함		
의미적 특성	C1	국악사와 관련된 유물 및 자료의 전시 뿐만 아니라 악기를 직접 연주해보거나 악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여 몰입감을 형성함		
	C2	박물관 전시주제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이나 시각적 요소의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음		
	C3	국악사에 관한 연구자료를 직접 탐색 가능한 아카이브실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관람객층을 고려한 전시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C4	국악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매체를 통해 청각 중심의 전시공간을 구성함으로써 한국 전통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함		

4.2.3 사례 C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주제로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역사적 흐름에 기초한 전시 구성 뿐만 아니라 참여형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⁷⁾ 박물관 인근에 서대문독립공원이 위치해 있어 국가의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다. 분석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사례 C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구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위치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24		
개요	개관(리모델링)	2022년	연면적	9,703m ²
이미지	  			
특성	분석내용			
물리적 특성	A1	인근에 서대문독립공원 바로 앞에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 및 접근을 고려함		
	A2	전시영역과 서비스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전시주제에 따라 층별로 공간을 구성하여 동선에 따른 전시 흐름 파악을 유도함		
	A3	전시물이나 내용이 돋보일 수 있는 모노톤의 색채 및 마감재를 활용하였으나, 박물관 전시주제를 연상시키는 색채 및 마감재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음		
	A4	전시물 배치에 따른 조명 계획, 온·습도 조절 및 환기 설비 등의 시스템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관람 환경을 조성함		
활동적 특성	B1	다국어 안내 및 QR 코드를 통한 오디오 해설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고령자와 시각 장애인을 고려한 전시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 지원 체계가 부족함		
	B2	박물관 1층에 개방된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각 전시공간마다 휴게가 가능한 가구를 배치하고 옥상정원 등을 함께 구성함		
	B3	박물관 전시주제와 연계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 당시 정부 문서를 직접 필사해보는 체험 활동을 제공함		
	B4	터치 및 조작 등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시내용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주제와 연계되는 인터랙티브 전시를 구성함		
의미적 특성	C1	박물관 전시주제와 연계되는 삼일절이나 광복절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함		
	C2	상징광장에는 '역사의 파도'의 작품을 설치하였고 전시공간 내에는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의 전시주제를 반영한 키네틱 아트 작품을 설치함		
	C3	1층에 개방된 형태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내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책이 비치된 서가를 통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람객층을 고려하여 전시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C4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 되기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각 층별로 구분하여 공간을 연출함		

4.2.4 사례 D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 전통의 생활 및 민속문화를 전승하고 문화적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인의 오늘, 한국인의 일년, 한국인의 일생'의 주제에 기초한 전시 구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⁸⁾ 박물관이 서울의 역사 중심지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이 연결을 이루는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다. 분석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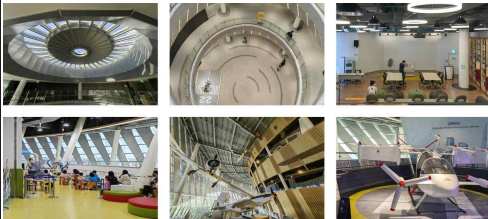
〈표 8〉 사례 D : 국립민속박물관

구분	국립민속박물관			
	위치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개요	개관(리모델링)	1945년(2021-24년)	연면적	20,195m ²
이미지	  			
특성	분석내용			
물리적 특성	A1	서울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 및 접근이 용이하나, 박물관 주출입구까지의 접근 경로가 멀어 일부 불편함을 초래함		
	A2	전시, 학습, 휴식의 기능별로 영역을 구분하고 전시 주제에 따라 공간을 구획하여 동선을 통해 박물관 전시흐름을 파악하도록 유도함		
	A3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연상시키는 외관 디자인으로 한국 전통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이라는 인상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내부 전시공간은 전시물이나 내용을 돋보이도록 모노톤의 색채 및 마감재를 적용함		
	A4	전시물 배치에 따른 조명 계획, 온·습도 조절 및 환기 설비 등의 시스템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관람 환경을 조성함		
활동적 특성	B1	다국어 안내, 점자 및 음성 해설 등을 통해 다양한 관람객의 전시 관람과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함		
	B2	로비 공간에 별도의 휴게 및 편의시설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전시공간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복도에 휴게를 위한 가구를 배치함		
	B3	전통문화배움터를 별도로 구성하여 박물관 전시주제와 연계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함		
	B4	신체 감지 및 터치 등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민속활동 체험 및 유물의 형태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함		
의미적 특성	C1	한국 전통의 생활 및 민속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와 연계하여 과거 한국인의 삶을 재현한 '70·80 추억의 거리'와 같은 외부 전시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기억 환기 및 정서적 몰입을 유도함		
	C2	한국 전통의 생활문화에 관한 전시공간에 한옥 형태를 구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사계절 풍경을 체험해볼 수 있는 실감형 전시 콘텐츠를 제공함		
	C3	한국 문화에 관한 교육이 가능한 'The K-Zone'을 전시공간 내 함께 구성함으로써 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함		
	C4	한국 전통의 생활 및 민속문화의 주제별로 유물을 구분하고 시대순으로 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함		

4.2.5 사례 E :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산업 및 문화를 주제로 군용 및 민간 항공기와 항공 관련 시설 등을 바탕으로 전시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항공 관련 직업 체험, 기내 안전 체험, 항공 레저스포츠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⁹⁾ 박물관이 김포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의 항공 산업과 연결을 이루는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다. 분석내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사례 E : 국립항공박물관

구분	국립항공박물관			
개요	위치	서울 강서구 하늘길 177		
	개관(리모델링)	2020년	연면적	18,593㎡
이미지				
특성	분석내용			
물리적 특성	A1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김포공항역이 위치해 있으며, 지상·지하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 및 접근을 고려함		
	A2	전시영역과 서비스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서비스 영역은 층별로 기능을 구분하여 1층에 안내 및 편의시설을, 2층에는 강의실과 사무실의 공간을 구성함		
	A3	항공기 엔진의 유선형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통해 곡선형의 유기적인 전시 관람 동선을 형성함		
	A4	전시물 배치에 따른 조명 계획, 온·습도 조절 및 환기 설비 등의 시스템을 반영하고 개방된 구조의 전시공간을 구성하여 최적화된 관람 환경을 조성함		
활동적 특성	B1	시간대별로 운영되는 정기해설, 영어 및 일어 지원이 가능한 외국어 전시해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관람객의 전시 관람을 유도함		
	B2	1층에는 레스토랑 및 무인카페를 구성하고 3층에는 실내휴게시설인 피크닉룸을, 3-4층에 야외휴게시설을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방문 및 체류를 유도함		
	B3	2-3층 전시공간의 주제와 연계되는 ‘조종관제체험, 기내훈련체험, 항공레포츠체험’ 등의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약을 통한 참여를 유도함		
	B4	영상 전시를 통해 다양한 항공기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시주제와 관련된 애니메이션 등을 상영함		
의미적 특성	C1	실제 항공기 기종을 전시하거나 공항의 모습을 일부 표현하는 등의 전시 구성을 통해 박물관 전시주제에 관한 몰입도를 형성함		
	C2	각 층에서 1층이 보이는 오픈된 형태의 공간 구조를 활용하여 천장에 다양한 항공기종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박물관의 전시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함		
	C3	3층의 항공배움놀이터를 통해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항공탐구교육, 드론교육, K-UAM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C4	항공산업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전시물 배치 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까지의 과정을 반영한 공간 연출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제공함
----	--

4.3 소결

본 연구는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인 ‘물리적 특성, 활동적 특성, 의미적 특성’에 기초하여 서울 소재의 국립박물관 사례를 분석하였다.

물리적 특성의 측면에서 모든 사례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 및 접근을 고려한 박물관 공간을 조성하였고 주변 공간의 특징과 연계를 이룸으로써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례 B는 지하철 경북공역의 일부 출구가 박물관의 인근에 위치한 광화문과 경북공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을 이루는 경로를 조성하여 한국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장소성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모든 사례에서는 박물관 공간을 전시주제를 기반으로 한 전시영역과 휴식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 E는 층별로 서비스영역의 기능을 구분하여 1층에는 안내 데스크 및 편의시설을 배치하였고 전시공간이 구성된 2층에는 강의실과 사무실을 배치함으로써 전시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있었다. 박물관 전시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전시물을 돋보일 수 있는 색채 및 마감재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 중, 사례 A는 한국 전통의 건축 양식과 색채 및 마감재를 활용하여 한국의 역사를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라는 점을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사례 E는 항공기 엔진이 갖는 유선형의 형태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통해 항공산업과 관련된 전시라는 점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원형의 평면 구성과 곡선형의 구조를 통해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전시 관람 동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활동적 특성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례가 다양한 관람객층을 고려하여 전시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자의 박물관 이용 및 전시 관람 등의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례에서는 지속적인 방문 또는 장기적인 체류 등이 가능하도록 로비 공간이 구성된 층에 휴게시설과 함께 카페,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을 구성하여 전시 관람 뿐만 아니라 휴식 및 교류 등의 행위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박물관 전시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인터랙티브 전시 구성을 통해 관람객이

실제로 조작하는 행위 과정에서 전시내용을 획득하는 등의 상호작용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 A와 사례 D는 터치를 통한 조작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3D로 구현된 유물의 형태나 내용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다.

의미적 특성의 측면에서 모든 사례가 박물관 전시 주제에 관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시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 연출 등을 통해 몰입감 있는 전시 관람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D는 한국 전통의 생활 및 민속문화를 주제로 한 박물관으로 주제와 관련된 전시물을 배치한 전시공간 뿐만 아니라 1970-80년대 한국의 생활사를 그대로 재현한 전시공간을 함께 구성함으로써 몰입감 있고 기억 환기가 가능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사례 E는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까지의 과정을 포함한 공간을 일부 재현하여 체험 활동 기반의 전시를 구성하고 있었다. 사례 C와 사례 E는 박물관 전시주제를 연상시키는 아트 작품 및 조형물 등의 시각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전시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박물관 전시주제와 연계를 이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단순히 전시 관람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아닌, 교육 및 학습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에 기초한 사례 분석 내용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 분석 결과

구분		세부 내용	
물리적 특성	접근성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례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고려한 이동 및 접근 경로를 제공함 - 대부분의 사례가 박물관 주제와 관련있는 공간 및 시설이 위치해 주제와의 연계를 통해 장소성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영역성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례에서 박물관 공간을 전시주제를 기반으로 한 전시영역, 휴식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 서비스영역으로 구분함 - 박물관 공간 구성이나 서비스영역의 운영 지원에 따라 각 영역을 구분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차이가 나타남
	매력성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사례에서 박물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색채 및 마감재를 적용하여 전시주제와 관련된 장소성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남(사례 A, 사례 E)
	쾌적성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례에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 계획, 온·습도 조절 및 환기 설비 등의 시스템을 반영함

활동적 특성	편의성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람객층의 이용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고령자의 박물관 이용 및 전시 관람 등을 지원하는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함
		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례에서 로비층에 휴게시설, 카페,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전시 관람 뿐만 아니라 휴식 및 교류 등의 사회적 행위를 유도함
	상호작용성	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례에서 별도의 체험공간을 구성하거나 박물관 주제와 연관되는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
		B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사례에서 터치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3D로 구현된 전시물을 관람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남(사례 A, 사례 D) - 디지털 기술 및 인터랙티브 장치를 통한 상호작용에 있어서 박물관마다 기술 적용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미적 특성	상징성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사례에서 박물관 주제와 관련하여 관람객의 기억환기 및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함(사례 D, 사례 E)
		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사례에서 박물관 주제를 연상시키는 시각적 요소를 반영함(사례 C, 사례 E)
	교육성	C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사례에서 박물관 주제와 연계를 이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및 학습의 기능을 강화함
		C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례에서 박물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공간 연출을 통해 공간 자체가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소성을 형성함

5. 결론

현대의 박물관은 단순히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소통 등이 가능한 다기능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시설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을 도출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신축 및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서울 소재의 국립박물관 사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실시하여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가능한 문화시설로의 개선 및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으로 ‘물리적 특성, 활동적 특성, 의미적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물리적 특성은 박물관의 위치, 공간구성, 동선, 색채 및 마감재 등의 물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박물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특성이다. 활동적 특성은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루도록 하는 특성이다. 의미적 특성은 박물관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박물관에 대한 정체성과 의미를 강화하는 특성이다.

둘째, 장소성은 장소만이 갖는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활동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 중에 물리적 특성의 적용이 가장 잘 나타났다. 박물관의 전시주제가 박물관 인근에 위치한 공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이뤄 하나의 공통된 내용에 기초한 장소성을 이루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전시주제에 관한 유물 전시 및 보존, 연구 및 교육 등의 기능의 수행과 함께 주변 공간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물리적 특성을 활동적 특성과 연계하여 전시 관람 뿐만 아니라 휴식 및 교류 등의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속적인 방문과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휴게 및 편의시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활동적 특성의 측면에서 박물관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공간으로 다양한 관람객층의 전시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자의 박물관 이용 및 전시 관람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고령자 중심의 다양한 전시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큰글씨 안내 및 음성 해설 등과 같은 지원 서비스와 고령자의 다양한 감각기능 발달을 고려하여 전시물의 실제 재료 및 문양 등을 직접 만져봄으로써 촉각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체험 활동 등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미적 특성의 측면에서 박물관 전시주제와 관련된 공간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시주제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 연출 등을 통해 몰입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 전시주제와 관련있는 전시물 배치 중심의 공간 구성이 아니라 전시주제와 연계되는 스토리텔링 요소와 체험적 요소를 통합한 공간 구성을 통해 관람객의 역사·문화적 기억을 환기하고 정서적 공감 등을 유도함으로써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물관 전시주제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나 조형

물을 전시공간 뿐만 아니라 로비나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는 서비스영역의 공간에도 설치하여 박물관 공간 전반에 걸쳐 전시주제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면, 박물관의 장소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박물관이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다기능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시설로서의 장소성을 형성하기 위한 개선 및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소성을 위한 박물관 공간디자인 특성을 도출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ik, Seonhae, (2004). The Intentional formation of place-ness in place marketing strategy : a case study of art festivals at small cities in Korea and the U.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 Cao, Qiuyan, (2019). Evaluation of Exhibition Space Design Elements and Analysis of Design Optimization Strategy - Centering on the Layout Method and Applicable Strategy of Lingnan Garden in China -.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 Chae, Seunghyun, (2021). A Study on the Experience Elements as the formation factors of Sense of Place in the Complex Cultural Space of Enterprise.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 Dissertation.
- Choi, Suyoung, (2023). User Perception of Sense of Place through Perceptual Experience - Focused on Urban Regeneration Using Culture and Art Space -.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 Cho, Ara, (2015).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Exhibition Space on the Audience Behavior.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 Dissertation.
- Do, Youngsil, (2017).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of Placeness in Pritzker Prize Winners' Works; Focus on prize winners' works since 2000s.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 Dissertation.
- Guo, Fengming, (202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pace Design Characteristics of Museum for Formation of Place on User Satisfaction.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 Hong, Keonggu (2009).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and Economic Value of 'Placeness' - Yak-Jun Street in The City of Daegu-.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 25(1), 255–262.
- Hwang, Jihee, (2013). The Analysis on User Satisfaction a nalysis with Sense of Place Formation Factors in Urban Cultural Space.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 Dissertation.
- Kim, Dayoung, (2021). A Study on Placeness of Choi Ma n Lin Museum as an Artist's House Museum. Kook mi 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Ma st er Dissertation.
- Kim, Hyeyoung,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Forma ti ve Factors of Placeness on Place Attachment, the Val ue Perception and Visitor's Behavioral Intentions in Mu seum – A Case of Museums in Jeong–dong –. Sook myung Women' 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 ster Dissertation.
- Kwon, Yoonku, (2013). The Formation Structure and Mean ing of the Sense of Place on Urban Streets– Research on Insa–dong and Daehak–ro within the framework of mixed–methods. Seoul National Univer sity, PhD.
- Lee, Junghwa, (2015). Study on Placeness Design to Im prove Exhibition Communication of Ecological Muse u m.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Con tents, Master Dissertation.
- Maeng, Jieun, (2015). A study on Ecomuseum Design for the Improvement on Placeness. Ewha Womans Univer 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Master Dissertation.
- Park, Jeewon, (2020). A Study on the Placeness For mati on Factors and Value Perception in the Multiplex Cultu ral Space by Utilizing Unused Space. Chung-Ang Univ ersity Graduate School, Master Dissertation.
- Shin, Yujin, (2021). A Study on Expected Types of Mus e um Visitor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 Woo, Eunyoung, & Kim, Moonduck, (2017). The Charac t eristics of Spaces and Programs of Local Museums E 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Spatial Marke ting – Focused on Seoul and Incheon –. Journal of the Kor 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6(3), 55–62.
- Yu, Hana, (2018). A Study on Urban Regeneration as a Pl aceness–making.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24(3), 466–479.
- Yu, Yang, (2021). The Construction and Empirical Study o f Evaluation Index System for Interior Public Space De sign of Jewelry Museum. Kaya University Graduated S chool, PhD.
- 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박물관 현황 통계, <http://data.seoul.go.kr/dataList/401/S/2/datasetView.do>
- 5) 국립고궁박물관, <https://www.gogung.go.kr/gogung/main/main.do>
- 6) 국립국악박물관, <https://www.gugak.go.kr/site/main/index001#>
- 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https://www.nmkpg.go.kr/>
- 8) 국립민속박물관, <https://www.nfm.go.kr/home/index.do>
- 9) 국립항공박물관, <https://www.aviation.or.kr/index.do>

Endnotes

- 1)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 3)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박물관 · 미술관 정보, <http://data.seoul.go.kr/dataList/OA-15272/F/1/datasetView.do>